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9.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

2018. 8. 17. 이현래 목사님

오늘은 사도시며 대제사장 중에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12).”**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대로 선지자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것은 우리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말로 번역해낸 사람들이다.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것을 듣고 와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선지자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사람의 말로 번역해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지금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말해주는 데 그것을 사역자라고 한다. 구약에서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들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번역해 준 사람들이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번역해야 되는 그것이 사역이다. 설교학을 배우는 것은 방법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설교학을 배운다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고, 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다.

**약속은 일방적인 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언약은 쌍무적인 계약이다.**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면 유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 언

약이다.

하나는 일방적이고, 하나는 쌍무적인 것이다. 성경책도 증거라고 ‘Testment’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하여 ‘Covenant’라고 영어로 번역해 놓았다. 한편으로는 약속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인 것이다.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책임만 있다.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책임을 이행한 만큼 실현된다는 말이다.

자세한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약속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전혀 없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렇다고 하신 것은 약속이다.

이 약속이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언약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때는 약속이 되고,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될 때는 쌍무적인 계약이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한다.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구약만 읽으면 알 수가 없다.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 8:10).”** 도대체 어떻게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할 것인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 사람은 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사람이다.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 안에 이런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옛날에는 돌비에 새겨준다거나 문서로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다. 새 언약은 더 이상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마음에 두고 심비에 새겨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비교를 하자면 **옛 언약은 예표라고 할 수 있고, 새 언약은 예표의 실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성취된다.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신약에 와서야 성취된다.

유대인들은 신약에 와서 성취된 그 약속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아직도 구약 안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이다. 유대인은 아직도 구약에 있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독교

인은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다르다. 하나는 껍데기이고 형식이고 예표인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이 한 사람에게 성취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니까 예수님만 성육신이지 누가 성육신이나는 것이다.

처음에 성육신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 의문이 생긴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이 성육신인데 왜 당신은 성육신이라고 하는가? 성육신의 보편화를 이야기 하느냐고 했다. 예수님 혼자 성육신하고 끝나면 도로 옛 언약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새 언약을 줄 때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지, 누구 한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다.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8:10).”** 저희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일단 첫 열매로서 이루어졌지만 그 첫 열매는 다음 열매들을 위한 것이므로 보편화가 되지 않으면 헛일이 되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성육신이 되셨는데, 우리는 성육신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예레미야로 약속한 약속이 거짓말이 된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다.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라고 했지 누구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첫 열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약시대에 살아도 역시 구약시대에 사는 것이다. 구약과 다를 것이 없다.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안에 없으면 여전히 구약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은 것이다. 유대인도 지금 그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들이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다.

예수님은 생명체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어떻게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이 새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것은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언약은 의식이나 제도나 지식 같으면 배우면 된다. 율법은 배우면 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이것은 생명의 언약이다.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으면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취가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취되겠는가? **그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취될 수 없다.**

그는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자신을 중보자로 내놓은 것이다. 마지막 만찬에서 약속을 한다. 내가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잔을 네게 주고 이 떡을 네게 준다고 약속 하셨다. 이것은 자기를 담보로 너희에게 새 언약이 올 것이라는 말이다.

예수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8장도 있고 10장도 있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계속 그 이야기이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계속 더 읽어보면 다 아실 것이다.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자.**

구약의 제사장은 사실상 형식상 제사장인 셈이다. 형식은 갖추었는데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증거 할 수 없다. 의식으로만 행할 수밖에 없다.

구약의 제사장이 행한 일을 보면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온다.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지만 실제로는 제물이 가는 것이다. 그 제물의 중보(죽음)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만나지는 것이다.

거기서 그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 효력이 없다. 아무리 제사장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 제사장은 단지 그 피를 운반해 갔을 뿐이다. 실제로 중보자는 희생제물의 피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또 구약처럼 했으면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처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우리가 그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 떡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의 몸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몸에 참여하는가? 어떻게 예수를 떡처럼**

### 먹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피로 마실 것인가?

이것은 약속을 위한 의식이었다. 유다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을 위해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10:10).”**고 하셨다. 예수께서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가? 어떻게 나와 관계가 되는가? 옛날에 내가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내 대신 죽으셨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죽은 일이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내 죄가 사함이 되었다고 한다. 벌금 같으면 다른 사람이 내주어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가 없다. 누가 죽어주어서 내 죄가 없어지겠는가?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

###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12).”**고 말한다.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내 피로 속죄를 드린 것도 아니고, 남의 피를 의지해서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가? 나에게서는 아주 어려운 숙제였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말도 된다고 한다. 의미가 비슷한 말이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유언을 하면 부모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듣기가 쉽다.

그것이 아니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효력이 확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유언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유언이 오면 내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에게 모두 상속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도 이 말을 소화하지 못한 이유는 구약적인 개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소화되지 않는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생각하기는 쉽다. 내 대신 벌금을 내주었으니까 나는 해방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것이 믿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믿어지는가? 또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자신은 그대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많이 믿었다. 많이 믿어서 달라진 것이 있는가?

죄사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죄를 회개하여도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이 말을 듣고 해방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모르고 6개월 동안을 걸어 다녔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가 했다. 여러분도 죄사함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 대부분 그렇게 말한다. 3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다. 아직도 그렇다는 사람도 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가? 나는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다.

####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모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로 약속하신 약속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8:10).”고 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는가? 아무리 믿어도 그 법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혹시 이 중에서도 경험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다. 믿기는 믿는다. 죄사함을 받아서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속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

몇 달 지나가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죄가 없어졌다는데 왜 또 죄를 짓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영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한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실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실재가 있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 날될 것 같다고 한다. 시간이 가면 또 마찬가지가 된다. 아침에 밥 먹고 배가 불렀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는가? 똑같은 일이다. 나는 처음부터 안 되어서 배가 불러본 적이 없다. 아무리 들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서 고민이었다.

**유언은 유연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의 증보자로서 죽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에서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이 말이 공중에서 헛돈다. 걸돈다. 종교적인 말로 끝난다.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시 헛되게 되는 것이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나를 포함한 죽으심이다. 그 분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다.

베드로는 도망을 갔지만 그 안에 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가 죽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 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다.**

베드로의 말에도 이런 말이 없다. 자기들은 목격자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보았고,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목격자이다. 목격자의 증언을 했던 것이다.

바울은 목격자가 아닌데 이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베드로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 것인데, 우리는 왜 그때 못 보았던가,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생하게 보고 증언하는데 우리는 생생하게 본 일이 없다.

은사와 같은 체험을 한 번 가지니까 힘이 나서 전도도 하는 것이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다 징표를 준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사실과 내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어느 날 가서 그 은사가 끝나고 나면 또 도로 묵이다. 은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젊었을 때 팔팔하던 사람이 늙으면 은사가 없어진다. 젊었을 때 병을 잘 고치던 사람이 늙으면 못 고친다. 자기 생명 같으면 늙으나 젊으나 똑같은 것이다.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걷어가시면 그만이다.

예수님께도 만일 기적을 행하시던 일이 생명의 문제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뭐하겠는가? 뛰어내리면 그만이다. 은사이기 때문에 못 뛰어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공중에 떠돌아다닌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In Christ' 라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두 그리스도 안에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쉬운 것이다. 그 법을 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떤 조항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In Christ’** 안에 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자기 세계가 바뀌었다. 매일 글이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에는 항상 **‘In Christ’**로 마친다. 간증을 시작하는데 오늘도 새 날이라고 시작한다. 그런데 마지막은 **‘In Christ’**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In Christ’ 안에서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다면, 무엇을 주었다면 ‘In Christ’ 안에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약속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다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제사장이다.** 옛날처럼 제물을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이 아니고 나대신 죽어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포함하기 위해서 죽었다. 죽은 것이 나를 포함하니까 나를 포함하신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분이 가신 곳에 나도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성소이면 나도 지성소에 가는 것이다. 내가 포함되었으니까, 포함 안 된 사람은 갈 수 없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9:15).”**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것이 성취될 수가 없다.

무슨 방법으로든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포함을 아는 것이 새 언약, 새 생명, 새 사람, 새 교회 이 모든 새로운 것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 구약과 똑같은 것이다. 구약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송아지 대신 예수를 드렸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송아지보다는 예수님이 낫다고 생각했다. 나와의 접근 관계를 볼 때 사람이니까 송아지 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없다. 나도 효과가 있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어봤는데 효과가 없다. 그 안에 포함된 나를 모르면 발견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예수와 나는 따로국밥이다. 대구말로 하면 따로 국밥이다. 국 따로 밥 따로



이다.

국과 밥을 말아놓은 것을 보고 국밥이라고 한다. 국과 밥을 따로 있는 것을 보고 따로국밥이라고 한다. 나는 대구 와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들었다. 유명한 따로국밥이 있다고 가자는 것이다. ‘국일 따로’라고 대구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갔더니 진짜로 국은 빨갛고 밥은 하얗다. 완전히 따로따로 준다. 다른데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따로국밥이다. 국밥이라고 하면 다 말아주는 것이 국밥이지 따로 주는 것은 국밥이 아닌데 여기서는 따로국밥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이 우리 운명이 그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따로이다. 영원히 따로이다.** 종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은 되겠지만 그분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기업은 가질 수 없다.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목이 칼칼해서 그만하겠다. 히브리서는 많이 읽어보기를 바란다. 이 책이 알쏭달쏭해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말 하다가 저 말하고, 저 말 하다가 이 말 하기 때문에 아주 알기 어렵다.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핵심을 모르면 너무 방대하게 말을 해서 헛갈린다. 한참 읽다가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놓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핵심만 이야기하니까 이 핵심을 가지고 보시면 쉽게 봐진다.

**중보자, 살아있는 중보자, 우리를 포함하신 중보자, 포함하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 중보자로서의 대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다.**